지역 소식통

정읍시 보건소, 초등생 구강보건 이동차량 운영

정읍시보건소는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21개교 137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제로 튼튼이(齒) 스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치아우식증(충치)이 많이 발생하는 학령기 아동들에게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올바른 구강생활 습관을 유도하고 구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구강보건 이동차량을 이용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우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금니 씹는 면의 좁고 깊은 홈에 흐름성 있는 재료를 메워 평생 사용하게 될 영구치의 충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동 스스로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치아 모형 등 다양한 교육 매체를 활용해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지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지역자활센터 농기센터와 협약 체결

고창지역자활센터와 고창군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수확' 등 저소득 자립 경제 능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서 주요내용은 농산물 원료 재배 기술 및 농식품 가공 교육, 기술개발 협력 도모 등을 담고 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주민들의 자립 및 경제적 자활 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고창군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실정에 맞는 재배 기술 교육, 농식품 가공 이용 기술 협력 등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내년 예산 1조1048억원

시, 지역경제활성화 · 현안사업 중점… 올해보다 1.3% 줄어

정읍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 동력 기반 마련을 위한 2024년도 예산안을 정읍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 2024년 본예산은 2023년 본예산 1조 1193억원보다 1.3% 감소한 1조 1048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145억원 감소한 것으로, 일반회계 1조 293억원, 특별회계는 755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조 293억원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올해 996억원보다 0.9% 증가한 1005억원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4828억원 대비 294억원 감소한 4534억원이다. 조정교부금은 24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3743억원 대비 370억원이 증가한 4113억원으로 편성됐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정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는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편성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의 내년도 경제활성화 사업으로는 △정읍사랑상품권 600억원 발행 △정읍형 공공배달앱 '위메프오' 확대 운영 2억 9000만원 △2027년까지 총 사업비 80억원 투입되는 샘고을 정다운상권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6억 52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기존 신혼부부에서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도 5년간 1% 최대 100만원에서 10년간 2%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정읍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농생명 첨단산업도시 조성 사업으로는 △농축산 미생물 공유인프라 구축 사업 207억원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 180억원 △반려동물 신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사업 71억원 △치유농업관 신축 35억원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사업에 10억 3000만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2025년까지 총 73억원을 투입해 혁신공간 공유센터 조성 등으로 농촌이 자립해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순항… 2026년 상반기 완공 목표

정읍시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용지매입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도내 14개 시군 중 산후조리원이 있는 지자체는 전주(7개소), 군산(2개소), 익산(1개소)다. 이마저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닌 민간산후조리원이여서 경제적 부담이 크고,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편중돼 타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전북연구원이 지난 6월 발간한 '전북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남권(정읍, 김제, 부안, 고창) 권역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낳은 출생아는 총 6033명으로, 그동안 서남권 산모들은 가까운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출산 이후 힘든 몸을 이끌고 전주나 광주 등으로 원정을 가야만 했다.

시는 서남권이 처한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지방소멸 대응 광역기금과 지자체 기금 75억원을 확보해 2026년 상반기에 공공산후조리원 완공을 목표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용계동 일원에 10실의 산모실과 각종 부대 시설 (연 면적 1089㎡) 을 갖춰 지어질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면 인근 소아 외래진료센터 와 어린이전용 병동 등 의료 인프라 집적화로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며 "지리적 접근성 완화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제1회 ESG 포럼 개최… 부안형 ESG 종합계획 수립 집중

블루카본 조성 · 비건식품 개발 등 부안형 ESG행정 통한 공동체 비전 제시

부안군이 부안형 ESG 종합계획 수립 구체화 및 추진동력 확보와 민관협력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회 부안 ESG 포럼을 지난 17일 변산 소노벨에서 개최했다.

부안군과 월드비전, 포스코이앤씨가 주최한 이날 포럼은 부안군과 부안군의회, 협업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권익현 부안군수의 개회사와 이정석 부군수의 부안군 ESG 상생협력 비전 발표, 1~2부 발제 등으로 진행됐다.

이정석 부군수는 부안군 ESG 상생협력 비전 발표를 통해 기존의 ESG에 새로운 가치를 접목한 부안형 ESG+N 모델을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형 ESG+N 모델은 기업(Enterprise)과 소셜스타트업(Social Startup), 정부·공공기관(Government), 비정부기구(NGO) 등이 공공의 이젠다 위에서 협력하는 컬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집단적인 영향력) 구조를 만들어 가는 구상이다.

부안군은 민간기업과 공기업, 행정부처, 소셜스타트업, NGO 등의 연계를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서해바다 블루카본 조성과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프로젝트, 비건농부 육성 및 비건식품 개발 등 오는 2026년까지 100개 세부 사업에 총 174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부안군은 블루카본의 터전이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유한 부안의 서해안 갯벌을 각 기업과 기관에서 입양해 염생식물 식재, 습지 환경정화, 반려습지 돌봄 행사 등을 통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반려갯벌 입양을 제안해 큰 박수를 받았다.

포럼 발제에서는 백인규 한국딜로이트그룹 센터장이 최신 ESG 동향 및 시사점을, 오경석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본부장이 ESG경영과 공공기관의 효율적 대응을, 임경진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이 자발적 탄소시장 현황과 전망을, 이상협 산림청 사무관이 산림분야 ESG 민관협력에 대해 설명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지방정부 ESG' 주제 공저 발간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연구소장 이희권, 이하 '연구소')는 '11개 키워드로 알아보는 지방정부 ESG' 책을 공저로 출간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에 출간한 책은 기업 중심의 ESG 활성화를 위해 행정 특히, '지방정부의 지원과 거버넌스가 필수적 요소'라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대표저자인 한신대 양세훈 초빙교수를 포함 11명의 연구자가 공저자로 참여했다.

최근 글로벌 경쟁 시대에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ESG가 기업경영 활동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책은 지역과 가장 가깝게 호흡하는 지방정부 역할이라는 맥락에서 공생 공존, SDGs와 연계, 탄소중립, 해외사례 등 11가지 키워드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이 책의 4장 '해외 지방정부 ESG' 부분을 쓴 연구소의 고광용 연구원은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별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글로벌 ESG 트렌드 및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

보안면 · 진서면 · 백산면 등 집중호우 피해지역

부안군이 올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면(보안면, 진서면, 백산면)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2025.8.13.)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신청을 하면 주거용 주택, 창고 등의 소실(전파, 유실)은 100%, 그 외 토지 등은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 호우피해를 입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재 관할 면사무소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측량신청시 제출하면 된다.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보안면, 진서면, 백산면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063-777-3758)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호승 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군민들의 피해복구와 재산권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